

퇴계의 서원부흥운동의 의의와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에 대한 일고찰*

김성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서원부흥운동의 배경과 전개
3. 서원부흥운동의 의의
4. 서원의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서원은 조선 중기이후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성현배향, 학문전파, 인재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자는 백록동서원 중건을 계기로 서원부흥운동을 일으켜 도학의 정신을 바로세우고자 하였고, 이를 본받아 퇴계 역시 서원부흥운동을 통해 도학을 바로세우고 강력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선현의 배향을 통해 나도 공부하고 실천하면 배향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강력한 동기유발과 함께 실천성을 가져왔으며,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성인되기-성인알기'의 도학교육과 실천을 이끌었다. 또한 서원원규제정 등을 통한 서원교육의 체계화와 함께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향촌사회의 문화창달을 이끌었으며, 도학실천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서원을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제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을 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서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6055825).

**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철학박사.

엇보다도 서원 본연의 기능인 교육을 살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시대와 무한경쟁 사회시대에 올바른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외연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서원이라는 조선 중기의 교육기관이자 건축물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것이 지니는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서원의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퇴계의 서원부흥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성학십도』 제5도 「백록동규도」를 중심으로 서원교육의 본의와 서원부흥운동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대적 계승방안으로서 인성교육과 더 나아가 남북유교문화교류라는 측면으로 서원부흥운동의 의미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서원, 퇴계, 도학, 백록동규도, 성인

1. 들어가는 말

서원(書院)은 조선 중기 이후 교육과 문화를 엮을 수 있는 역사적, 철학적 장소이자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이다. 서원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지난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총9곳)이 세계유산에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다.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 교육기관 중 하나로 중국 당나라 때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송대 주자에 의해 세워진 백록동서원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주자는 당대 관학중심의 위인지학(爲人之學)의 폐단을 극복하고 진정한 학문, 즉 도학의 실천을 위해 서원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서원을 통해 다시금 도학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였다.

주자를 스승으로 삼은 퇴계 역시 유교의 도덕정치이상을 토대로 세운 조

선이 사화(士禍)의 시대를 거쳐 도덕이상이 땅에 떨어진 현실을 타파하고 강력한 도학실천을 위해 서원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미 유교사상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꽃피우고 발전하였고, 특히 중국 근대에 있어 비림비공(批林批孔)운동으로 유교를 부정하고 타파한 역사 속에서 이제 중국의 서원이 아닌 한국의 서원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성리학의 전파와 교육, 건축물 등 종합적으로 세계유산등재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 OUV)’를 충족시켰으며 세계가 인정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서원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하여 활용하는가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서원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박물관에 담아놓는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로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원은 본연의 교육기능과 오늘날의 문화관광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서원을 교육적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서원이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물이기에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유교문화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서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서원이라는 조선 중기의 교육기관이자 건축물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것이 지니는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서원의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퇴계의 서원부흥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성학십도』 제5도 「백록동규도」를 중심으로 서원교육의 본의와 서원부흥운동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대적 계승방안으로서의 인성교육과 더 나아가 남북유교문화교류라는 측면으로 서원부흥운동의 의미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2. 서원부흥운동의 배경과 전개

2.1. 사화(士禍)의 시대와 퇴계의 도학(道學)정신

‘서원(書院)’하면 중국 서원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 유교의 중심축이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로 오기 이전까지는 중국은 유교의 중심지였다. 유학사를 살펴보면, 유학은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라 하는 선진유학(先秦儒學) 시기를 거쳐 한나라 때에 이르러 국교로 지정되어 만개하였지만 이후 불교의 유입과 혼란기를 거쳐 송대 이르러 신유학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데, 송대 신유학은 바로 북송오자(北宋五子)의 학(學)을 종합한 주자학이었다. 주자(朱子)는 불교와의 사상적 대결과 대응을 통해 철학적 체계를 세밀히 정립하여 유학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당시 그가 살아간 송나라는 북방 세력에 밀려 쇠퇴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정권은 도학(道學)의 기치를 내건 주자학보다 주전(主戰)과 실리추구에 매몰되어 있었다. 주자는 서원을 통해 다시금 도학의 정신을 바로세우고 이학(理學)을 강명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바로잡고 나아가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주자를 선생으로 여겼던 퇴계 역시도 서원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퇴계가 활동하던 시기는 사화(士禍)의 시기로 조광조를 주축으로 한 도덕정치의 이상이 무너지고 퇴계 본인도 형을 사화로 잃었던 사화의 한 가운데를 살았다. 퇴계는 관직에 나아간 뒤에도 끊임없이 사직서를 쓰고 낙향하여 후학양성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단순히 후학을 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도학을 바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대표적으로 향촌자치규약 제정과 보급, 강학활동 등은 도학의 실천과 도덕정치의 이상을 펼치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이것은 서원부흥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퇴계는 도덕정치의 이상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기존의 교육기관의 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험과 들은 바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가만히 오늘날의 학교를 보건대, 사장(師長)이든 생도든 간에 혹 서로 그 도리를 잃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단 학규(學規)만 강명(講明)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령(學令)까지 크게 무너져서 스승은 엄하지 못하고, 생도는 공경하지 못하여 도리어 서로 폐해를 입히고 있다. 국학(國學)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사학(四學)은 더욱 심하다. 얼핏 들으니 사학의 유생(儒生)들이 사장 보기를 길가는 사람 보듯 하고, 학궁(學宮) 보기를 여관방 보듯 하며, 평상시에 예복을 갖춘 자가 옆에 두세 사람도 없고, 흰옷과 검은 것 차림으로 줄줄이 왕래하며, 사장이 들어오면 수업을 받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읍(揖)하는 예를 행하는 것까지 꺼리며 부끄럽게 여긴다 한다. 서재(書齋)에 번듯이 누워서 훑어보고 나오지도 않고, 그 이유를 물으면 공공연하게 “나는 예복이 없다.”고 대답하며, 사장 가운데 이 폐습(弊習)을 바로잡으려는 이가 있어서 며칠을 연달아 읍례(揖禮)를 받으면 크게 해괴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때를 지어 기롱하고 욕하며, 혹은 옷을 떨쳐 입고 이불을 싸 가지고 떠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를 건드려 떠나게 하고서 양식을 착복하려는 것이다.” 하고, 혹은 여러 사람에게 외쳐 대기를, “우리들은 침요(侵撓)를 견딜 수 없으니 의당 서재를 비우고 흩어져 가야 한다.” 하여 이것으로 사장을 위협한다 하니, 도리를 알고 예로써 몸을 검속한다는 사람들이 차마 이런 행동을 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¹⁾

오늘날에도 교육의 폐해, 교권의 상실 등 현대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 역시 교육은 당면한 문제였다. 퇴계는 그 교육을 바로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미 기존의 교육기관의 역할은 학문 본연의 역할보다는 출세를 위한 과거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때문에 도학을 바로세울 서원의 건립은 중요하였다. 서원부

1) 『退溪先生文集』卷41, 「雜著」, <諭四學師生文> : 竊觀今之學校, 爲師長爲士子, 或未免胥失其道, 非但學規不講, 並與學令而大壞, 不嚴不敬, 反相爲癩, 其在國學, 不可謂無此, 而四學尤甚, 仄聞四學儒生, 視師長如路人, 視學宮如傳舍, 常時具禮服者, 十無二三, 白衣黑笠, 唯唯往來, 及其師長之入, 受業請益, 姑不言, 至以行揖禮爲憚爲恥, 偃臥齋中, 睨而不出, 問之則公然答曰, 我無禮服, 其有師長欲矯此弊者, 連數日受揖禮, 則大相駭異, 羣譏聚罵, 或奮衣襜被而去曰, 是撓我輩使去而欲取其食, 或揚言於衆曰, 我輩不堪侵撓, 會當空齋散去, 以是怵師長, 曾譏識道理以禮律身者, 忍爲是乎. (이하 문집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인용)

홍운동은 그런 퇴계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본격적인 작업이었으며, 주자의 서원부흥운동을 참고하여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퇴계는 서원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서원은 무엇을 하려고 설치한 곳입니까. 어진 이를 높이고 도를 강명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송조(宋朝)의 네 서원 이후로 남송(南宋) 시대에 점점 성해지다가 원(元)·명(明) 시대에 와서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저 몇 대(代)에 국학과 향교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별도로 서원을 건립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국학과 향교는 과거와 법령의 구속이 있어서 서원이 어진 이를 존경하고 도를 강명하는 아름다운 뜻에 전념하는 것만 같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은 사사로이 세우고 나라에서 은명(恩命)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나라에서 명하여 건립하고서 사람을 선택하여 인재를 가르치고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에서는 당대(當代)에 와서야 비로소 서원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른바 사사로이 세우고 나라에서 은명을 내린 경우입니다. 우러러 성조(聖朝)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찌 저 몇 대의 유풍을 사모하여 다가 가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비의 관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고서 여기서 노닐고 여기서 먹는 자들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신재(愼齋) 주후(周侯)가 이 위대한 사업을 창시할 적에 그 일을 논하고 규범을 정한 것이 비록 뜻은 높되 식견이 소루한 흠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였지만, 어진 이를 높이고 도를 강명하는 뜻에 전념한 것은 확고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비로서 와서 유학하는 자는 비록 과거(科擧)의 엄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도를 강명하는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도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숭상할 줄은 알아서 학행을 겸비하여 사군자(士君子)의 풍도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이며, 서원에 들어온 선비를 혹 신선의 땅인 영주(瀛洲)에 오른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²⁾

2) 『退溪先生文集』卷12, 「書」1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夫書院何爲而設也. 其不爲尊賢講道而設乎. 自宋朝四書院之後, 漸盛於南渡, 而大盛於元明之世, 彼數代非無國學鄉校, 而必更立書院者, 何也. 國學鄉校, 有科擧法令之拘, 不若書院可專於尊賢講道之美意. 故或因私立而國寵命之, 或國命立之而擇人教養也. 若吾東方, 則

퇴계는 주자의 서원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도덕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학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향교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성균관과 향교는 과거를 위해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공부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서원의 교육은 과거와는 상관없는 순수한 경전공부를 통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었다. ‘어진 이를 높이고 도를 강명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서원의 설치목적이기에 배향인물 또한 공자(孔子)나 맹자(孟子), 주자(朱子) 등 중국 성현(聖賢)이 아닌 안향(安珦), 조광조(趙光祖) 등 우리나라 선현을 주향(主享)으로 하여 ‘우리 와 먼 인물이 아닌 직접적으로 가까운 선배를 배우고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실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건립에 직접 관여한 역동서원(易東書院)의 경우에도 정자와 주자를 배향하지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인 우탁(禹倬)선생만 배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김부필이 묻기를, “역동서원(易東書院)에 정자와 주자 두 선생을 모시어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두 선생은 다 역학(易學)에 공이 있는 분들이다. 이미 서원 이름을 역동(易東)이라 하였으니,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우 췌주(禹祭酒 우탁(禹倬))를 배향(配享)한다면 실로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 서원의 모든 일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학전(學田)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지키는 종들도 적은데, 갑자기 이렇게 중한 예(禮)를 벌였다가 결국에 태만하게 되면, 그것은 높이를 구하다가 도리어 흠대하는 것이니, 우 췌주만 모시어 편리한 것만 못할 것이다.”하였다. -김성일-³⁾

至當代而後始許立院，所謂因私立而國寵命者，竊仰聖朝之意，亦豈非慕數代之遺風而欲庶幾云云耶，然則冠章甫之冠，衣縫掖之衣，遊於斯，食於斯者，其自處當何如哉。慎齋周侯，創茲偉事，其論事設規，雖未免意高見疎之病，其專於尊賢講道之意，則確乎其不可易矣。故士之來遊者，雖未脫科舉之累，亦未諭講道之方，然猶知重道義，尙禮讓，彬彬乎習於士君子之風，此書院之所以爲貴，而入院之士，或比之登瀛者然也。

퇴계가 보기에 먼 중국의 선현보다 가까운 우리나라 선현인 우탁을 모시는 게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학문을 단순히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아닌 실천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는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소수서원 사액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만 해도 10여 군대가 넘으며⁴⁾, 특히 역동서원의 경우 도산서원과 같은 예안에 있는 대표적 서원으로 누구를 배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도학적 가치를 지닌 인물을 배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도 도학을 상징하는 인물에 비해서는 후순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최충(崔冲)·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성조(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⁶⁾이라고 말하며 도학자가

- 3) 『退溪先生言行錄』卷4, 『類編』: 金富弼問, 易東書院, 尊祀程朱兩先生, 何如. 先生曰, 兩先生, 皆大有功於易學者也. 既曰易東, 則立廟尊祀, 配以禹祭酒, 固是盛, 但, 院中諸事, 草草已甚, 既無學田, 又鮮典僕, 卒然建此重禮, 終至於褻慢, 則求以尊之, 反以慢之也, 恐不如獨祀禹祭酒爲便.[金誠一]
- 4) 퇴계의 시 가운데 서원십영(書院十詠: 『退溪先生文集』卷4, 『詩』 <書院十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 퇴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에 대해 알 수 있다. 풍기(豐基)의 죽계서원(竹溪書院), 영천(永川)의 임고서원(臨臯書院), 해주(海州)의 문헌서원(文憲書院), 성주(星州)의 영봉서원(迎鳳書院), 강릉(江陵)의 구산서원(丘山書院), 함양(咸陽)의 남계서원(藍溪書院), 영천(榮川)의 이산서원(伊山書院), 경주(慶州)의 서악정사(西岳精舍), 대구(大丘)의 화암서원(畫巖書院)에 대해 읊고 마지막에 총론제원(總論諸院)이라는 제목으로 총 10수의 시를 지었는데, 모두 학문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 5) 퇴계가 적극적으로 서원 건립에 참여한 역동서원의 경우 퇴계 자신이 서원기를 작성하고 서원배향자로 우탁을 결정하였는데, 우탁은 본래 충신이자 도학자였다. 그러나 퇴계는 영봉서원에서 김굉필을 도학자로 언급하면서 이인복을 명교에 보탬이 되는 인물로 평가한 것처럼 우탁의 모습을 충신보다는 도학자의 면모를 부각시켰다.<김형수, 『이황서한(李滉書翰)을 통해본 명종대서원(明宗代書院)의 창설(創設)과 운영(運營)』, 『퇴계학과 유교문화』5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p.39 참조>

있는 곳에는 서원을 건립하여 도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2.2. 서원의 설립과 확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서 1542년(중종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회헌(晦軒) 안향(安珦) 선생을 기리고자 안향이 어릴 때 공부하던 숙수사 터에 사당(文成公廟)을 세워 위패를 모시고 영정을 봉안, 안향 선생을 기리는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후임 풍기군수로 온 퇴계가 선조임금께 국가의 지원을 부탁하는 사액(賜額)요청 소를 올리고(1549년, 명종4년) 명종(明宗)이 직접 ‘소수(紹修)’라 이름짓고 직접 쓴 친필 환판과 서책, 노비, 토지 등을 하사받으면서 본격적인 서원의 부흥이 시작된다. 소수서원은 ‘끊어진 도를 다시 잇는다’는 뜻을 지닌 것처럼 퇴계 자신이 서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도학적 가치를 담고 있다. 퇴계의 서원부흥운동을 계기로 서원은 조선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있기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퇴계는 서원의 설립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서원이란 명칭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일찍이 남당(南唐) 시대에 이발(李渤)의 은거지인 여산(廬山)의 백록동(白鹿洞)에 학궁(學宮)을 창립하고, 스승과 생도를 두어 가르치며 이를 일러 국상(國庠)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서원의 유래입니다. 송나라도 이것을 그대로 따랐으나 중엽까지도 성행하지 않아 전국에 다만 네 곳의 서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송나라가 남하한 이후에는 비록 치열한 전쟁으로 어수선한 나날이었는데도 민월(閩越)·절강(浙江)·호북(湖北)·상남(湘南) 지역에 사문이 성하게 일어나 선비들의 학문이 날로 번성하여 서로 사모하고 본받아 곳곳에 증설되었습니다. 오랑개인 원(元)나라가 중국을 점령하였을 때에도 먼저 태극서원(太極書院)을 건립하여 천하를 창도할 줄 알았습니

6) 『退溪先生文集』卷9, 『書』1 <上沈方伯> : 若崔冲, 禹倬, 鄭夢周, 吉再, 金宗直, 金宏弼之居, 莫不立書院, 或出於朝命, 或作於私建, 以爲藏修之所, 以賁揚聖朝右文之化, 明時樂育之盛矣.

다. 대명(大明)이 천명을 받음에 이르러 문화가 크게 천명되어 학교의 행정이 더욱 닦이고 고조되었으니, 이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기재된 바를 참고 하면 천하에 서원이 모두 3백여 군데나 되며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곳도 많을 것입니다. 무릇 왕궁과 수도로부터 지방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서원이 없는 곳이 없었으니 서원에서 취할 이점이 무엇이길래 중국에서 저토록 숭상한단 말입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넓고 한적한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조용히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피서 덕을 쌓고 인(仁)을 익혀 이것으로 낙을 삼을 생각으로 기꺼이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학령(學令)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과거(科擧)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공효를 어찌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도 틀림없이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은 것입니다.⁷⁾

퇴계는 서원의 교육은 성현의 도를 배우고 체득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현을 본받아 우리 역시 성인(聖人)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퇴계가 만년에 선조임금께 올린 『성학십도』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임금이 성군(聖君), 즉 성인(聖人)이 되어야

7) 『退溪先生文集』卷9, 「書」1 <上沈方伯>: 夫書院之名, 古未有也. 昔南唐之世, 就李渤舊隱廬山白鹿洞, 創立學宮, 置師生以教之, 謂之國庠, 此書院之所由始也. 宋朝因之, 而其中葉, 猶未盛, 天下只有四書院而已, 渡江以後, 雖當百戰搶攘之日, 而閩浙湖湘之間, 斯文蔚興, 士學日盛, 轉相慕效, 處處增置, 雖以胡元竊據, 猶知首立太極書院, 以倡天下, 逮我大明當天, 文化大闢, 學校之政, 益以修舉, 今以一統志所載考之, 天下書院, 總有三百餘所, 其所不載者, 想又多也. 夫自王宮國都, 以及列郡, 莫不有學, 顧何取於書院, 而中國之所尚如彼, 何哉. 隱居求志之士, 講道肄業之倫, 率多厭世之器, 抱負墳策, 思逃於寬閒之野, 寂寞之濱, 以歌詠先王之道, 靜而閱天下之義理, 以蓄其德, 以熟其仁, 以是爲樂. 故樂就於書院, 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 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 亦必於此而優於彼也.

함을 강조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퇴계는 성균관이나 향교가 과거 등에 매몰되어 있는 폐해를 극복하는 것으로 서원 교육의 공효(功效)를 들고 있다. 퇴계는 이러한 공효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히 서원을 건립하여 진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규율을 만들어 향후 서원 건립과 운영에 일종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퇴계가 1559년 몸소 찬(撰)한 『이산서원원규』가 대표적이다.

“제생(諸生)들은 독서하는데 사서(四書)·오경(五經)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門戶)로 삼으며, 국가의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서 온갖 선(善)이 본래 내게 갖추어진 것을 알고 옛 도(道)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서, 모두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체(體)를 밝히고 용(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여러 사서(史書)와 자서(子書)와 문집, 문장(文章)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내외(內外)·본말(本末)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 사특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모두 원내(院內)에 들어 눈에 가까이 해서 도(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⁹⁾

이산서원(伊山書院)은 영봉서원(迎鳳書院), 역동서원(易東書院)과 함께 퇴계가 직접 관여한 대표적 서원이다. 퇴계는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와 서원 재생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면 서원에서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8) “하물며 임금의 마음은 만 가지 징조가 연유하는 곳ियो 백 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이며, 온갖 욕심이 공격하고 온갖 간사함이 서로 침해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하여 방종이 따르게 되면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옛날의 성군(聖君)과 현명한 왕은 이런 점을 근심하였습니디.”

9) 『退溪先生文集』卷41, 『雜著』〈伊山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 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學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並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에 대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직접 지었는데 이는 훗날 건립되는 경상도 지역의 서원 원규의 전형이 된다.¹⁰⁾ 또한 영봉서원 건립과정에서는 제향인물의 위치(位次)문제에까지 관여하였고, 역동서원 건립과 배향인물 선정 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서원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퇴계문인들 역시 퇴계의 이러한 뜻을 이어받아 서원건립에 노력하였으며¹¹⁾ 퇴계는 서원건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퇴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 중 대표적인 서원은 퇴계의 시(詩) ‘서원십영(書院十詠)’에 잘 나타나 있다. ‘서원십영’은 도학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성현을 본받아 실천하고자 하였던 퇴계의 정신과 사상을 잘 알 수 있다. 죽계서원(풍기), 임고서원(영천), 문헌서원(해주), 영봉서원(성주), 구산서원(강릉), 남계서원(함양), 이산서원(영주), 서악정사(경주), 화암서원(대구) 등 9개의 서원과 수신의 도를 체득하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총론제원(總論諸院)을 합쳐 10수로 되어 있는데 퇴계가 얼마나 서원을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서원을 통해 도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¹²⁾

10)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8호, 한국서원학회, 2019, p.10.

11) 퇴계문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명종~선조(임란이전)대 당시 건립된 71개소 가운데 34개소에 관여하였다.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8호, 한국서원학회, 2019, p.21>

12) 이정화, 『퇴계 이황의 서원십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85,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p.20.

〈표 1〉 서원십영에 등장하는 서원일람표¹³⁾

지역	서원명	건립	사액	제향인물	추향인물
풍기	竹溪書院	중종38 (1543)	명종5 (1550)	安珦(1543)	安軸(1544) 安輔(1544) 周世鵬(1633)
영천	臨臯書院	명종10 (1555)	명종10 (1555)	鄭夢周(1555)	張顯光(1643) 皇甫仁(1787)
해주	文憲書院	명종4 (1549)	명종5 (1550)	崔沖(1549) 崔惟善(1549)	
성주	迎鳳書院	명종14 (1559)	선조6 (1573)	金宏弼(1560) 程伊川(1573) 朱晦庵(1573)	李彥迪(1623) 鄭述(1623) 張顯光(1642)
강릉	丘山書院	명종11 (1556)		孔子(1556)	
함양	藍溪書院	명종7 (1552)	명종21 (1566)	鄭汝昌(1552)	鄭蘊(1677) 姜翼(1689)
영주	伊山書院	명종13 (1558)	선조7 (1574)	李滉(1574)	
경주	西岳精舍	명종16 (1561)	인조1 (1623)	金庚信(1563) 薛聰(1563) 崔致遠(1563)	
대구	畫巖書院	명종19 (1564)	현종1 (1660)	李滉(1613)	鄭述(1622) 鄭經世(1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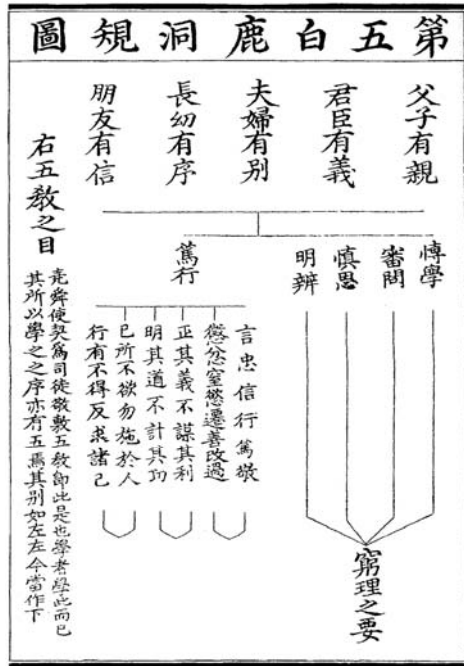
퇴계의 서원운동은 본질적으로 도학을 바로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서원이 건립되고 강학과 인재 양성, 지역민의 교화, 향촌 문화창달 등의 순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서원은 점차 강학기능 대신 제향우위로 변하면서 본연의 기능이 쇠퇴하고 당권척도로서의 문중중심의 향촌 지배층 존속을 위한 상징으로서 변하면서 남설(濫設)과 훼철(毀撤)의 과정을 겪게 된다.¹⁴⁾

13) 조준호, 『퇴계 이항의 서원건립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2호, 역사문화연구소, 2006, p.116 참조

14) 정순목, 『주희암과 이퇴계의 서원교육론 비교』, 『퇴계학보』53, 퇴계학연구원, 1987,

3. 서원부흥운동의 의의

3.1. 성인(聖人)되기-성인(聖人)알기



〈그림1〉 성학십도 제5도 백록동규도

서원부흥운동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퇴계의 서원부흥운동은 서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는 배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성인임을 알게 하는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백록동규(白鹿洞規)는 주자가 지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도에

게 게시한 것으로 퇴계는 이를 성학십도 제5도에 그림으로 그려 해설과 함께 배치하고 성학을 실천하는 학문의 요체로서 밝힌다. 「白鹿洞規圖」를 통해 퇴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면, 퇴계가 왜 서원을 세우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백록동규도」는 성학십도 다섯 번째에 위치하면서 전반부 5개 도(圖),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상 다섯 개의 그림은 천도에 근본하고 있지만, 그 공효는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도록 하는 것에 있다”¹⁵⁾고 말한다. 이는 「태극도」와 「서명도」에서 우주와 인간의 원리를 보여주고 「소학도」, 「대학도」에서 유교의 가르침을 제시하였다면 「백록동규도」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교육시킬 것인가를 다룬 것이다.¹⁶⁾

백록동규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륜(五倫)과 이를 실천하는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은 다섯가지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일 뿐으로 배우는 순서에 따른 조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표 2〉 백록동규도 조목별 분석

구분	조목	내용
오륜 (五倫)	父子有親	부모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君臣有義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長幼有序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치를 연구하는 요체 (窮理之要)	博學	널리 배운다.
	審問	자세하게 묻는다.
	慎思	신중하게 생각한다

15) 『退溪先生文集』卷7, 「筓子」〈進聖學十圖筓 并圖〉 第五白鹿洞規圖：以上五圖，本於天道，而功在明人倫懋德業.

1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예문서원, 2009, p.215.

	明辨	명백하게 분별한다.	
몸을 수용하는 요체 (修身之要)	言忠信 行篤敬	말은 충성과 신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은 돈독하고 공손해야한다.	독행 (篤行) 신실하게 행동한다
	懲忿窒慾 遷善改過	성내는 것을 경계하고 탐욕을 막아 야 하며, 허물을 고쳐 선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을 처리하는 요체 (處事之要)	正其義 不謨其利	뜻은 올바르게 두고 이익은 꾀하지 않으며	
	明其道 不計其功	도는 밝게 하고 공을 바라지 않는다.	
타인을 대하는 요체 (接物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行有不得 反求諸己	행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에게서 그 원인 을 구하여야 한다.	

『백록동규도』는 유교의 기본 가르침인 오륜(五倫)을 두고 이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조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 감정, 사욕, 배려 등 기본적으로 인간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과 어기기 쉬운 요소에 대한 경계 등으로 세밀하게 정리하였다. 서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응당 이 가르침대로만 실천하여도 성공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퇴계는 『성학십도』를 올리며 『백록동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한다.

“신이 이제 삼가 규문(規文)의 본조목에 의거하여 이 그림을 만들어서 보고 살피기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당우(唐虞) 시대의 교육은 오품(五品)에 있고, 삼대(三代)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규(洞規)의 궁리와 역행(力行)이 모두 오륜에 기본을 둔 것입니다. 또 제왕의 학문이 갖추어야 할 준칙과 금지의 조목은 일반 학자들과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에 기본을 두고 이치를 규명하고 실행에 힘써서 심법(心法)의 절실하고 요긴한 것을 구하는 면에서는 같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이 그림을 현상하여 아침저녁으로 시종하는 이가 아뢰는 잠언(箴言)에 충당하옵니다.”¹⁷⁾

17) 『退溪先生文集』卷7, 「筍子」 <進聖學十圖筍并圖> 第五白鹿洞規圖：右規, 朱子

퇴계에게 있어 『성학십도』는 갓 즉위한 어린 임금 선조에게 올리는 성리학의 요체이자 노학자의 만년의 학문의 결정체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성군(聖君)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성인(聖人)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성학십도』를 정리한 것이다. ‘성인되기’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본래 성인이었음을 알게 하는 ‘인륜을 밝히는’ 교육으로서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된다.¹⁸⁾ 『백록동규도』를 통한 서원교육의 핵심은 배향인물을 본받아 따르면 나 역시 배향인물과 같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성인되기를 위한 조목을 스스로 성찰하고 실천하는데 있는 것이다.

3.2 도학실천의 생활문화화

조선시대 이미 성균관과 향교라는 대표적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이라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은 성균관과 향교가 그 교육적 기능이 쇠하였다는 판단과 그러한 교육이 아닌 도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퇴계는 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서원에서 어떤 가르침을 행할 것 인가인데, 퇴계는 가장 먼저 주자의 『동규후서(洞規後敘)』를 참고한다.

所作以揭示白鹿洞書院學者，洞在南康軍北匡廬山之南，有唐李渤隱于此，養白鹿以自隨，因名其洞，南唐建書院，號爲國庠，學徒常數百人，宋太宗頒書籍，官洞主以寵勸之，中間蕪廢，朱子知南康軍，請于朝重建，聚徒設規，倡明道學，書院之教，遂盛于天下。臣今謹依規文本目，作此圖以便觀省，蓋唐虞之教在五品，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故規之窮理力行，皆本於五倫，且帝王之學，其規矩禁防之具。雖與凡學者有不能盡同者，然本之彝倫，而窮理力行，以求得夫心法切要處，未嘗不同也。故并獻是圖，以備朝夕警御之箴。

- 18) 퇴계의 교육론은 공맹의 성선설과 주자의 이기론으로 연결되는 정통지점에서 있으며, 악한 본성을 교정하는 방식의 순자식 교육이 아닌 선한 본성을 알게하는 맹자식 교육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교육 역시 성인이 되어본 적도 없는데 성인되기를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선한 본성을 타고난 존재로서 성인 바로 알기의 교육론이라는 점에서 ‘성인되기-성인알기’로 확장되어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보건대 옛날 성현이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을 가르친 뜻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의리(義理)를 강명(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뒤에 이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두루 보아 사장(詞章)을 짓기에 힘써 명성을 구하고 이록(利祿)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은 이와는 상반된다. 성현이 사람 가르치는 법은 경(經)에 갖추어져 있으니, 뜻있는 선비는 마땅히 숙독(熟讀)하고 깊이 생각하여 묻고 분별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이(理)의 당연함을 알아서 자신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책려한다면, 그 일상생활의 법도와 금지 규정을 어찌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 뒤에 준수하고 좃을 필요가 있겠는가. 요즈음에도 학교에 규정은 있지만 학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천박하고, 그 규정도 딱히 고인(古人)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당(堂)에는 더 이상 그 규정을 쓰지 않고, 특별히 성현들이 사람들에게 학문하는 것을 가르친 바의 큰 근본을 취하여 위와 같이 조목조목 열거하여 현판에 게시한다. 제군들은 서로 강명하고 준수하여 이것을 몸에 실행하기를 기한다면,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바가 반드시 저 규정보다 엄격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고 혹 금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남이 있다면 이른바 규정이란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요 실로 생략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니, 제군들은 명심할지어다.”¹⁹⁾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세운 목적은 사장을 지어 명성을 구하고 이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경전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었다. 주자는 49세에 백록동서원을 증건한 이후로 직간접적으로 60여개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고, 당시 도교의 도관이나 불교의 사찰에 비해 형편없는 숫자

19) 『退溪先生文集』卷7, 「筭子」, <進聖學十圖筭 并圖> 第五白鹿洞規圖: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 今之爲學者, 既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 具存於經, 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苟知理之當然, 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 而後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已淺矣, 而其爲法, 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 而揭之楣間, 諸君相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謹恐懼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 而或出於禁防之外, 則彼所謂規者, 必將取之, 固不得而略也, 諸君其念之哉.

를 가진 유교 교육기관의 현실을 보고 서원부흥을 통해 유학의 정신을 바로세우고자 하였다. 주자학은 불교와의 사상적 대결 속에서 대응되는 체계를 형성해나갔기에 서원 역시도 절과 같이 개인의 해탈을 위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유학의 본의를 살린 절충적 교육장소였다.

퇴계 역시도 성균관과 향교처럼 중심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산 속에 위치하지 않는 마을 언저리 즈음에 위치시켜 도학 본연의 학문을 일으키면서도 함께 사는 공동체와 떨어지지 않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서원의 교육과 규율 방식 등을 체계화하고 의례를 통해 선현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식, 그리고 실천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를 선도해나갔다. 서원을 중심으로 강학과 제향의 기능이 실시되었고, 인재양성, 학문의 교류, 여론의 형성 등 향촌사회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었다. 사액 서원의 경우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여 서원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서원 고유의 향사례를 통해 의례가 정립되고²⁰⁾ 지역문화를 쇄신하게 된다. 서원은 배향인물이 우리나라 선현으로서 그 지역 출신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시대로 따져본다면 멀게는 고조부 이상 가깝게는 조부, 증조부 대의 인물로서 직접적으로 도학실천의 교육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즉, 우리 조부와 교우하던 분이 서원에 배향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한다는 것은 서원에 배향된 인물과 같이 배우고 실천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실천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원은 중앙정치문제에 대한 알림기능과 향촌 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차적 거점이 되었고, 통문을 통한 의견교환, 여론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²¹⁾ 오늘날로 말하면 서원이라는 존재가 그 지역공동체에

20) 서원의 향사례는 서원의 실질적 정착과 내실을 다진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는 “한재훈, 『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을 참조하라.

있어 여론을 주도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거점지인 셈이다. 향후 서원은 항일운동의 의병 거점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²²⁾

4. 서원의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

이처럼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현 배향, 학문교류, 인재양성, 지역문화 전파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많이 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문화관광차원을 넘어 서원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세대에 서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되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과 문화교류의 측면으로서의 서원에 초점을 두고 현대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과 남북유교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1. 현대적 인성교육과 문화체험의 장

서원 본연의 기능은 교육이지만 오늘날 현대적 교육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러나 서원 교육의 오늘날 현대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현대 교육의 제문제에 대한 실마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은 이미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타인에 대한

21) 차장섭, 『도산서원의 정치, 사회적 역할과 위상』, 『역사교육논집』54, 역사교육학회, 2015, p.180.

22) 무성서원(武城書院)의 경우 면암 최익현 등이 태인의병 창의를 결의한 곳이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서원이 의병을 일으키는 주요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

共感보다는 경쟁의 대상자로서 무감정하게 대하는, 영원한 타자로써만 이해되어지는 공감상실의 교육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 선한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 선한 본성을 가진 나와 너의 관계성으로서의 확장되는 유교 인성교육이 강력히 요청되는 때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할 뿐이다. 그 근거로 유교에서는 차마하지 못하는 감정을 말한다.

“사람이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다 짹짹 놀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 것이다.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려 해서가 아니며, 동네 사람들과 벗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며, 그 아이를 구하여 주지 않았다는 나쁜 평판이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²³⁾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생각, 계산, 판단 등의 마음이 아닌 직관지로 드러나는 우리의 고유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선한 본성을 두고 교육을 한다면 바로 선한 본성에서 발한 감정이 알려주는 진실함을 올바로 이해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감정의 진실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은 근대성의 상징인 이성우위의 교육과 자본주의의 세대 속에서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교육에 매몰된 경우가 많으며, 공감보다는 경쟁을 통한 우열

23) 『孟子』, 『公孫丑上』6: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가리기에 천착된 상태이다. 교육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사람다움의 가치를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 재산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봉사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의 교육은 오늘날 무너져 가는 공감교육, 인성교육을 바로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도덕윤리의 실천을 삶으로서 보여준 성현에 대한 존경의식을 표하는 향사례 체험과 함께 오류의 실천을 위한 강학 등의 서원 전통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전교육의 현대적 활용뿐만 아니라 성현을 존경하고 이를 의식화한 의례 등의 체험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서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재활용사업²⁴⁾ 등을 통해 서원에서 인성교육체험, 서원스태이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동 도산서원이나 영주 소수서원의 경우는 선비문화수련원을 갖추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서원별로 각기 나름의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²⁵⁾ 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원에서의 인성교육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현재 국내 600여개의 서원 중 이미 상당수 서원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진행이 필요하다. 정기적 교육체험이나 의례참여, 탐방 등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설혹 학교에서 시행하는 단체교육으로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할지라도 서원 자체가 지니는 분위기와 정신,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기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있어 그 체험교육은 인생에 있어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원 주변을 문화예술 전시공연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심

24)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을 보면 사업공고와 사업신청 등을 통해 약38개 서원을 선정,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25) 그런 의미에서 서원 간의 교류와 통합, 콘텐츠 공유 등을 위해 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신수양 이야기길, 명상의 길 등을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고, 디지털 서원 관광 앱 개발 및 VR체험 등 IT기술 과도 연계한 스마트한 서원을 구축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4.2. 남북유교문화교류의 장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의 급격히 증가하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기점으로 하여 축소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복원되기 시작하여 현재 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한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북한의 경우 유교가 근대 봉건주의 산물로 철저히 부정받기 때문에 서원의 훼손 등은 심각한 상태임이 일반적이다. 북한 지역에 훼손되지 않은 서원으로 울곡 이이를 제향하는 문회서원(文會書院, 건립연대 미상, 1568사액), 박세채를 제향하는 장연군의 봉양서원(鳳陽書院, 1695건립, 1696사액), 이항복을 제향하는 노덕서원(老德書院, 1627건립, 1687사액)이 있으며²⁷⁾, 1966년 문화유물보존연구소에서 출간한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에서는 소현서원, 송양서원, 배천 문회서원, 재령 경현서원, 운흥 함경서원 등이 현전하고 있는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²⁸⁾ 북한 공산주의 사상에서 유교는

26) 서원 본연의 기능은 교육기능을 살리면서도 문화관광의 요소를 결합하여 보고듣고 느낄 수 있는 서원, 배우고 익히고 기억할 수 있는 서원,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서원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유산이었던 서원을 오늘날 사람의 관계와 접목시키는 것이다. 젊은 청년 문화예술가와 협업하여 서원 주변부를 문화예술 공연·전시 공간으로 만들거나 서원의 해설을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일해설사가 되어 부모가 들려주는 서원이야기 프로그램 구성 등 다양하게 서원교육과 활성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 <김성실, 『대구경북 서원활용 문화콘텐츠 개발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9, p.94~95 참조>

27)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84 <블라미르글롬(Vladimir Glomb), 마틴겔만(Martin Gehlmann),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연구』, 한국서원학회보7권, 한국서원학회, 2018, p.61 재인용>

28) 문화유물보존연구소,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 평양: 군중문화출판사, 1966, p.51

극복되어야 할 반봉건의 대표적 사상으로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되었지만, 개성 성군관²⁹⁾이나 창성향교 등 성군관과 향교 등의 유교문화자산은 학교로서의 기능을 살려 교육장소로 활용하거나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등의 변형된 방법으로 보존되거나 아니면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일부 유산은 보호되고 있다. 서원 역시 마찬가지로 개성 숭양서원, 해주 소현서원, 평양 인근 용곡서원이 대표적인데 이는 문화관광적 요소가 우수한 측면이기도 하다.³⁰⁾

이처럼 서원이라는 공통의 유교문화자산을 토대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미 개성 성군관 등은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 유립단체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적지로서 함께 있는 곳은 공동발굴조사 등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원은 세계유산등재라는 호재를 맞아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세계적 유산으로 거듭날 서원의 통합적 관리·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서원연합회와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등의 단체가 있어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관리 등에 힘쓰고 있지만, 서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현황은 미비하고 통합보존체계 역시도 지역 간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남한의 서원현황과 보존·관리 현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후로 남북 간 공동연구 및 발굴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율곡을 배향한 서원의 경우 북한의 소현서원과 남한의 자운서원이 대표적인데, 율곡이라는 공통의 인물을 놓고 서원 간 합동의례 진행이나 학술교류, 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블라미르글롬(Vladimir Glomb), 마틴겔만(Martin Gehlmann),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연구』, 한국서원학회, 2018, p.63 재인용>

29) 고려문종때 별궁으로 지어졌다가 고려 국자감이 이전하며 교육기관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고려박물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0) 블라미르글롬(Vladimir Glomb), 마틴겔만(Martin Gehlmann),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연구』, 한국서원학회, 2018, p.78.

과제에서 가장 밑바탕에는 역사적·민족적 동질성 회복이 먼저인데, 서원 배향인물이 같은 한 가족임을 우리의 어르신임을 알게 하는데서, 서원이라는 유산이 유무형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방안,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 등 서원을 토대로 한 다양한 활용방안은 차치하고서라도 남북 간의 기나긴 시간 속의 단절을 만회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더욱 더 문중에서 배향한 인물을 기리는 서원은 남북이 하나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뿌리가 결국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퇴계가 태어나기 3년 전 연산군4년의 무오사화가 그가 4세였던 연산군 10년에는 갑자사화가, 19세 때인 중종14년에는 기묘사화가 45세 때는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퇴계는 사화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도학정치의 이상을 꿈꾸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원을 건립하고 전파하였다.

서원은 조선 중기이후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성현배향, 학문전파, 인재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자는 백록동서원 중건을 계기로 서원부흥운동을 일으켜 도학의 정신을 바로세우고자 하였고, 이를 본받아 퇴계 역시 서원부흥운동을 통해 도학을 바로세우고 강력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선현의 배향을 통해 나도 공부하고 실천하면 배향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강력한 동기유발과 실천성을 가져왔으며,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성인되기-성인알기’의 교육과 실천을 이끌었다. 또한 서원원규제정을 통한 서원교육의 체계화와 함께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향촌사회의 문화창달을 이끌었

으며, 도학실천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서원을 자리 매김하게 하였다.

이제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을 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서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원 본연의 기능인 교육의 가치를 살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무한경쟁시대 속에 올바른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 서원을 통해 문화체험과 남북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그 외연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람다움의 가치를 기르는 서원교육의 정신과 유산이 오늘날 미래세대의 교육에 접목되고, 더 나아가 사회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孟子』

『退溪先生文集』

『退溪先生言行錄』

2. 논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예문서원, 2009.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김성실, 『대구경북 서원활용 문화콘텐츠 개발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9

블라미르글롬(Vladimir Glomb), 마틴겔만(Martin Gehlmann),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연구」,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이정화, 「퇴계 이황의 서원십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5,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 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건립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2, 역사문화연구소, 2006.
- 정순목, 『주회암과 이퇴계의 서원교육론 비교』, 『퇴계학보』 53, 퇴계학연구원, 1987.
- 차장섭, 『도산서원의 정치, 사회적 역할과 위상』,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5.
- 한재훈, 『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

3. 기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Seowon Revival Movement of
Toegye and the Modern inherit and development Plan

Kim, Sung-sil*

Seowon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nshrine the sages, academic dissemin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symbolism as a place representing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The runner tried to establish the spirit of Taoism by raising the Seowon revival movement with the middle of Baekrok-dong Seowon, and Toegye also made efforts to establish DoHak(道學) through the Seowon revival movement and to make strong efforts for practice.

Especially, through the sages of our country, I have brought strong motivation and practicality that I can become a sages if I study and practice. I led education and practice of Sage-knowing rather than become a sages, In addition, it led the cultural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centered on Seowon along with the systematization of Seowon education through the regulation of Seowon, and established Seowon as a center point to root the practice of DoHak(道學) in the local community.

Now, the Seowon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world heritage beyond the Seowon of China, and it is possible to expect cultural tourism using Seowon. However, mo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education, which is the function of Seowon, to inform the right education in the era of materialism and infinite competition society today and to expand its appearance.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eowon,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rchitecture in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was recognized as a world value today and what the essence of its meaning is. To do so, the

* Ph.D., Associate Research Fellow,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Seowon Revival Movement of Toegye will be examined first, and the meaning of Seowon Education and Seowon Revival Movement will be examined focusing on the 5th 『Diagram of Rules of the White Deer Hollow Academy』 of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s to expand the meaning of the Seowon revival movement in terms of character education as a modern succession plan and furthermore, inter-Korean Confucian cultural exchange.

Key Words : Seowon, Toegye, Dohak, Diagram of Rules of the White Deer Hollow Academy, Sages

<필자소개>

이름 : 김성실

소속 : 대구경북연구원

전자우편 : sincerity25@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0년 1월 3일

심사완료일 : 2020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24일

